



공동체 소식



연중 제 32주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아버지 하느님, 하느님은 죽은 이도 살리시는 분이시니,
저희가 삶과 죽음에서 복된 희망을 품고,
저희 마음에 심어 주신 성자의 말씀을
작한 행실로 열매 맺게 하소서.**



11월 기도지향

- 김정원(베드로), 김말자(세실리아) 가정
- 김도영, 박희영(카타리나) 가정

위령성월

교회는 해마다 11월 2일에 기념하는 ‘위령의 날’과 관련하여 11월 한 달을 ‘위령 성월’로 지내고 있습니다. 위령 성월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특별히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입니다. 이 위령 성월에 신자들은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지들의 영혼은 물론 죽은 모든 이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는 이 시기에 특히 연옥에서 단련 받는 영혼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사목 방문을 위한 9일 기도

- 기간 : 11/15(금) ~ 11/23(토) 오후 9시, 각 가정
- 방법 : ① 가정 제대에 불을 밝힌다. ② 성호경을 긋고 지향-“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가 일치된 마음으로 사목방문을 잘 준비하도록 은총을 청합니다”-을 말한다. ③ ‘사제를 위한 기도’ ④ 묵주의 기도 5단(‘환희의 신비’부터) ⑤ ‘성모 찬송’을 바친다.

공동체 준비 사항

- 평협 / 재정분과 / 교육분과 보고(서면 작성)
- 전례분과 : 꽃다발 및 선물 준비
- 행사분과 : 체육관 셋팅 및 엠프 설치
- 구역분과 : 안내 및 음식 준비
- ☞ 공동체 협조 사항 : 미사 시간 엄수(적어도 10분 전), 개인 장복 혹은 사진 촬영 금지

캔사스 상륙회 경로 잔치

- 일시 : 11/10(일) 오후 3시 ~ 7시
- 장소 : Thomahawk Ridge Community Center

기타

- 11월 달, 맨하턴과 로렌스 공동체 미사는 본당 전례 관계로 쉽니다.
- 이번 주, 중남부 사제 모임 관계로 평일미사는 없습니다.
- 다음 주일(11/17), 성당 대청소가 있습니다.
- 다음 주일(11/17), 평협회의가 있습니다.
- 부고 : 문석찬 요셉 형제님의 부친(문한식 베드로, 83세)께서 11/07(목)에 선종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463	211	504/502	227

주일미사 복사

	항 복사	시종 복사
금주	정병훈(보니파시오)	안광민(야 고 보)
	김준영(요 셉)	안광희(크리스토페)
차주	이우영(가브리엘)	문석찬(요 셉)
	이원준(요 한)	문호진(안토니오)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명은(안 젤 라)	정준구(파비아노) 박혜정(카타리나)
차주	최은미(아 네 스)	고영방(스테파노) 김명은(안 젤 라)

애찬 봉사자

금주	손정화, 한춘희, 황의정, 양정희, 유경애
차주	박혜정, 지은경, 김재은, 윤윤아, 김경돌

헌금 봉사자

금주	김태중(예레미야), 정수한(베드로)
차주	김시연(엘리사벳), 백문주(엘리사벳)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11/03	85명	316불	1,050불
김화년, 이영민, 김태중, 이우석 (총 4세대)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0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M: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부 회 장 정수한 베드로
M: 913.707.8142
scnn8@hotmail.com
재 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32주일입니다. 오늘 미사의 독서와 복음은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옮겨가는 것임을 보여 줍니다. 위령 성월을 지내고 있는 우리는 파릇파릇했던 잎사귀들이 낙엽이 되어 구르는 모습을 보며 죽음에 대하여 진지하게 묵상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참된 희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성화해설

부활 논쟁

(칼 하인리히 부르흐, 1873년, 동판에 유채, 덴마크 국립역사박물관 소장)

“사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는 것이다.”(루카 20,38)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며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전능과 예수님 부활의 은총으로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을 육체에 돌려주십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한 육체로 영적인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에 대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지영현 시몬 신부 |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제 1 독서 : 2마카 7,1-2.9-14 < 온 세상의 임금님께서서는 우리를 일으키시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이오. >

화 답 송 : 

주님 언제나 당신을 뵈옵으로 흠족하오리 - 다

- 주님 들으소서 죄 없는 자의 사연을 제가 부르짖는 소리를 굽어들으소서. 거짓 없는 입시울로 애원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어 들어 주소서. ◎
- 제 걸음은 곳곳이 당신 길만 따르옵 기 두 다리는 비틀거림이 없삽나이다. 응답이 계시었기 주님 당신을 부르오니 제게 귀를 기울이시와 이 말씀을 들어 주소서. ◎
- 노동자처럼 저를 지켜 주시고 당신 날게 그늘 아래 이 몸을 숨겨 주소서. 저는 의로움으로 당신 얼굴 뵈오리다 깨어나 당신을 뵈옵으로 흠족하오리다. ◎

제 2 독서 : 2테살 2,16-3,5
<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의 힘을 북돋우시어, 온갖 좋은 일과 좋은 말을 하게 해 주십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죽은 이들의 말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하기를 비나이다. ◎

복 음 : 루카 20,27-38<또는 20,27.34-38> < 하느님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

쉐 마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서 어떤 희망을 찾습니까?”



교형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왜 천주교를 믿습니까? 첫째, 복을 받기 위해. 둘째, 죽은 다음 영원한 삶을 위해. 셋째,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넷째,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2004년 한국갤럽에서는 한국인의 종교의식을 조사하면서 불교인과 개신교인 그리고 천주교인에게 “왜 종교를 믿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천주교인의 78%가 마음의 평안을 위해 종교를 믿는다고 대답했고, 영원한 삶을 위해서라고 대답한 사람은 6.4%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개신교인도 마음의 평안이 59.4%로 많았지만, 영원한 삶을 위한 대답이 22.7%에 달하면서 천주교인보다 3.5배나 많았습니다.

님의 재림의 지연에 대한 고찰이 이 서간의 주제이기는 하겠지만, 결국 중요한 점은 테살로니카 신자들도 세상의 종말이 언제 일어나든지 이후에 주님의 재림을 통한 구원에 희망을 걸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초대 교회에서부터 신앙인들은 분명하게 주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면서 교회에서 생활하였다는 것이 신학적 중심사상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가이들과 부활 논쟁을 벌이셨는데, 오늘 복음말씀인 루카복음보다 마태오복음에서 그들을 더욱 호되게 꾸짖으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부활 때에는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마태 22,29~30)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루카 20,36) 결국 사두가이들이 죽음 이후의 삶에 희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엉뚱한 상황을 만들어 질문하고 꾸지람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정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내세구원에 더 큰 희망을 두고 있습니까? 한 해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각자 진지하게 자문하고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교구 전영준 바오로 신부 -

그렇다면 저는 오늘 제1독서에 나오는 한 어머니와 일곱 아들의 순교 이야기를 한국 천주교인의 종교의식에 따라서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시리아왕 안티오코스가 이교제사를 강권하고 하느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데에 대하여 “당신은 우리를 이승에서 몰아내지만, 온 세상의 임금님께서서는 당신의 법을 위하여 죽은 우리를 일으키시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이요.”(2마카 7,9)라고 항변하면서 죽어갔습니다. 만약 마음의 평안을 위해 종교를 믿었다면, 그들도 현실에 타협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내세의 영원한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모두 죽음을 선택하였을까요?

한편 제2독서에서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은 제2장에서 특히 세상의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서간에서 일부 신자들이 세상의 종말이 이미 도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하면서 세상의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성사되기 이전에 먼저 많은 전조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물론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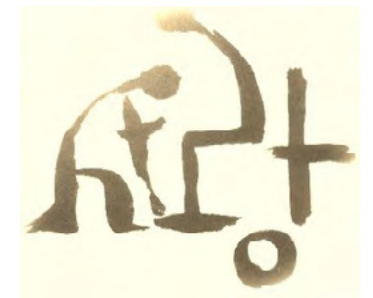


마중물

예수님과의 관계

헨리 나웨이 어떤 모임에 참석했을 때, 같은 테이블에 있던 한 여인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지금은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이 불평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은 모두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당신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어떤 관계에 있으십니까? 2주 동안 매일 5분씩 조용히 앉아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기도하면서 주님의 임하심을 간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난 후에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매일 아침 주님을 만나십니까? 날마다 주님의 위로와 평화로 눈을 뜨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매 순간 살아가며, 잠자리에 들 때에 그의 품안에서 쉬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어떤 부자이건 어떤 권력가이든, 어떤 유명한 사람이든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매순간 주님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해도 하느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헛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 선행도, 기도도, 다 자기 자랑일 뿐입니다.

‘신앙의 해’ 교육자료

제 7절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61. 이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다스리고 계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하늘로 올려지고 영광스럽게 되어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지상 교회 안에 머무르시고, 성령의 힘으로 교회에 행사하시는 권위의 원천입니다. “신비 안에서 이미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지상에서 하느님 나라의 싹과 시작이 된 것이다”(가톨릭교회교리서, 669항).

예수님의 승천 이후 하느님의 계획은 그 완성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1요한 2,18). “그러므로 이미 세기들의 종말이 우리에게 다가왔으며 세상의 쇠신도 되돌이킬 수 없이 결정되어 이 현세에서 어느 모로 미리 이루어지고 있다. 교회가 이미 지상에서 참된 성덕으로 불완전하게나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교회헌장, 48항). 그리스도의 나라는 교회의 복음 선포에 수반하는 기적적인 표징들으로써 이미 그 현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670항).

- 『저는 믿나이다』, 청주교구 복음화 연구소, 2012 -